

선서화와 도자기가 손잡고 자연을 노래

김양수-가또가츠와 작가 '세상을 품다'展

"예술이라는 산을 오르다 길 위에서 우리는 만났다. 자연에 귀의한 선승처럼 살아가고자 뜨겁게 두 손을 잡았다"

한국 선화가 김양수 작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와 일본의 도예가 가또가츠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둘의 만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작가가 당시 일본에서 '고요를 품다'전을 개최하고 있었다. 가또가츠와 작가는 아내와 함께 이 전시를 관람하게 됐고 그의 그림에 반하게 된다. 이렇게 가또가츠와 작가는 그에게 함께 하는 전시를 제안하게 됐다. 2012년의 끝자락 두 작가의 인연은 꽃을 피우게 되었다. 도자기와 선서화, 한국과 일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감을 작품 속에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5점 정도의 그림과 도자기 작품을 선보여요. 도자기를 바닥에 놓으면 벽은 비워 있었잖아요. 그 벽을 수목화로 채우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 세계에 있는 두 작가가 만나 서로의 예술적 능력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자연에서 가져온 도자기와 함께 자연의 느낌을 많이 살린 선서화를 전시한다. 자연의 온기를 품은 그의 먹은

직관과 청빈의 세계 선화로 표현

도예가 가또가츠와와 공동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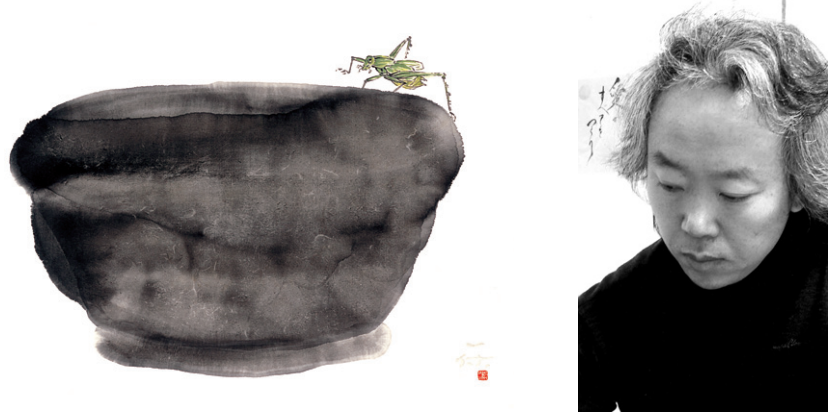
11월 29일부터 일본 갤러리 마루서

계곡이 되었고 섬이 되었고 산이 되었고 장독 위 귀뚜라미가 되어 세상과 만나게 되었다.

"저는 그림이 한 편의 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독 위 귀뚜라미가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을 표현했죠. 이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 작가는 한국의 문화가 서양의 것을 국의 질그릇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김 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가또가츠와 작가는 한국 문화에 매우 관심이 많은 분이예요. 특히 용기 질그릇 등 그 부각한 느낌을 매우 좋아해서 그 질



김양수-가또가츠와 작가의 '도자기와 그림의 만남-세상을 품다'전이 11월 29-12월 2일 일본 나고야 마루백화점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림은 김양수 작가(사진 오른쪽)의 '품다'



가또가츠와(사진 오른쪽)는 한국 질그릇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왼쪽 이미지는 작가의 작품 '요변사방연적'.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선화는 구경하기가 힘들죠. 선화는 직관의 세계, 청빈과 고요를 표현하는 가장 동양적이면서 선적인 그림이죠. 이를 통해 물질 문명에 찌들린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의 덕성산 작업실에서 자연과 더불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김양수

작가. 그는 머리가 복잡해질 때면 인근 철장사에 올라가 명상을 하며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고요로 파고들어 직관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인도도 여행을 떠난다는 김작가. 그의 새로운 고요를 기대해 본다. (010)6827-8763 정혜속 기자 bwjns@hyunbul.com

개혁의 시대, 로맨티스트는 슬프다

연극 '로맨티스트 죽이기'

삼국유사의 '도화녀와 비형랑' 설화를 모티브로 한 연극이 관객들을 찾는다. '로맨티스트 죽이기'가 11월 24일-12월 9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국립극단의 삼국유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로맨티스트 죽이기'는 삼국유사의 원전 설화를 뒤집어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보여준다.

1500년 전 신라는 당시 귀족 중심 사회였으나 왕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귀족과 왕족의 대립이 심해졌다. 나라 밖 교류가 활발해지며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며 빈부의 격차가 급

도화녀와 비형랑 설화 모티브

신라 흥륜사 문짓기 재구성

격하게 커졌다. 진지왕 '흥륜사 문' 건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현대의 문제로 재해석했다.

설화에 따르면, 비형은 여우로 변신해 도망친 도깨비 '길달'을 잡아 '축귀(逐



삼국유사의 '도화녀와 비형랑' 설화를 모티브로 한 '로맨티스트 죽이기'가 11월 24일-12월 9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鬼)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로맨티스트 죽이기'에서는 도깨비 '길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배치한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최고 권력자의 양아들이었던 그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도깨비로 인식되었는지, 또한 도망치다 결국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상상해 본다.

길달이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던 로맨티스트였다면, 길달의 꿈과 그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위함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출발한 '로맨티스트 죽이기'의 상상력은 길달을 둘러싼 다섯 인물의 관계와 당시의 사회 권력구조를 풀어내 오늘의 한국 정치, 사회적 문제를 꼬집어낸다. 1688-5966 정혜속 기자

"지친 중생에게 자비의 마음 전하고파"

도행 스님의 3번째 개인전 11월 27일까지 아트센터서

도행 스님의 3번째 개인전 '도행 불화전'이 11월 21일-27일 인사동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사십이수 관음도' '도반의 향기' '봉황 반자문' '용 반자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십이수 관음도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표현하고자 했다. 도행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화현해 중생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존재죠. 그래서 칼 꽃 약 연꽃 등 다양한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있어요. 또 광배 양 옆으로는 해와 달을 배치해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뜻을 표현했죠"

스님은 이밖에도 철보만다라 범륜 등



도행 스님의 '사십이수 관음도'

다양한 문양을 응용한 여러 장르의 불화를 선보인다.

지리산 작업실에서 자신의 작품에 매진하고 있는 도행 스님은 자신의 그림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스님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마련된 전시다. 천천히 만만 동자승의 모습에서 자비로 세상을 내다보는 관세음보살님을 통해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02)736-1020 정혜속 기자

자비의 바람이 산사에서 불어오네

위싱턴 보림사 경암스님 선서화전 11월 26일부터 나무갤러리서

위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 스님이 제9회 국제선서화전을 개최한다. 11월 26-12월 5일에서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경암 스님은 무심의 손끝에서 빚어진 달마도를 비롯 거북 용 코끼리 등 민속화까지 다채로운 그림 60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육바라밀 작품은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 야 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작업에 임했다. 나의 작품이 중생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시회를 여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1월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서울 국회의사당 전시 이후 불



경암 스님의 '달마도'

자들을 위해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전시다. 앞으로 스님은 내년 3월과 4월에는 부산과 제주에서, 5월에는 캐나다, 7월에는 일본 오사카 8월부터는 미국에서 순회전을 열 계획이다. 경암 스님은 57년 마곡사로 출가, 84년 위싱턴에 보림사를 개원했으며 미주불교신문의 발행인, 대학에서 선불교 강의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혜속 기자

진각종 청년 밴드 JnB 콘서트

12월 1일...진각문화전승관서

진각종 청년 보컬 밴드 JnB가 2012년 콘서트를 개최한다. J&B소울에서 JnB로 명칭을 바꾼 밴드는 이번 개명을 계기로 좀더 전문성 있는 밴드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12월 1일 오후 3시 진각문화전승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에서 JnB는 클래식 찬불가, 찬불가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사한다.

JnB는 "2004년 결성 이후 8년간 300회의 음성 공양을 펼쳐왔다. 이번 콘서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새로운 이름으로 단장한 JnB가 진각문화전승관 개관을 축하하

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청년불자로서 음성공양을 통해 포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JnB는 바람부는 산사, 지혜는 자비를 낳고, 마음에 내린 비 등을 솔로 듀엣 중창 등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한편, 진각종 유가 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12월 1일 저녁 7시 금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유가합창단은 찬불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음성공양을 펼칠 예정이다. 합창제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부산 교구청장 효린 정사 등이 참석한다.

정혜속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호기외강판, 일반기외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범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ukukak.com

■ 하남매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ukak.com

불성의 광명과 긍정의 힘
계발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방송강의 중

《다라니의 힘》
수지심사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일상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참 행복을 위한 '무한능력' 일깨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상스님 수행일기 · 범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덕양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이 당신의 수행일기와 범문을 통해 자성(自性)을 깨닫는 다라니수행의 길을 체험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으로 불성의 무한능력을 일깨우는 불교적인 자기개발서이자 다라니수행 안내서가 되도록 편집했다.

일산 덕양선원 031-907-7172, 다음카페(cafe.daum.net/zeol)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승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1권 출간!
운거, 소산, 조산, 용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금강종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금강한 33가지

031-534-3373